

[아버지학교 10주년] 인터뷰 - 김성욱 본부장

김성욱 장로 (아버지학교 국제본부장)/ 2005/ 페이지수: 2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가 이 학교의 주인”

**아버지학교는 가정 회복·교회부흥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목회·선교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는 영적운동으로 도약**

아버지학교가 이제 개설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아버지학교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영원한 멘토이시며, 영적으로 저를 지도해주신 하용조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 목사의 격려와 지도,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러 번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버지학교를 처음 시작하신 황은철 목사님, 도은미 사모님, 아버지학교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평신도들과 비전, 삶을 함께 나눠 주신 권준 목사님, 박종길 목사님 등 많은 목사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학교 운동은 조직도 없이, 자금도 없이 시작한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버지학교 운동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학교 운동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10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아버지학교 운동의 의미에 대해 재성찰함으로써 다음 10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버지학교운동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1960년대 군인과 농민을 중심으로 한 새마을운동, 즉 근대화운동, 1970년대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 1980년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이어지며 사회는 민주화, 근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보혁, 세대간, 동서의 갈등으로 어지럽기만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일어서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학교를 개최하면서 사회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제4의 구국운동, 가장 실천적인, 영적인 운동이 바로 아버지학교 운동입니다.

둘째, 아버지학교운동은 교회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운동입니다. 목회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로 어우러져 펼치는 감동이 바로 초대교회의 패러다임인데 우리는 그 원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학교 운동은 목회자와 평신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운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게 쉽게 접근해 감동을 주고 가치관과 세계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아버지학교입니다.

셋째, 아버지학교운동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운동입니다. 땅 끝으로 가는 선교, 즉 지역선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직선교가 있어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선교입니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와 아들 등 세대를 잇는 수직선교를 통해 구원과 선교라는 교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시작된 운동입니다. 아버지학교운동은 한국의 역사를, 한국의 교회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장 소중한 영적 운동이자 사회 운동입니다.

다시 한 번 아버지학교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버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동역을 바랍니다.

*** 출처 - 온 누 리 신 문**